

세계가 인정한 목소리, 전주를 노래하다

문화공간 이룸, 비르투오조 시리즈 피날레 ‘소프라노 서선영 독창회’ 15일 개최

전주의 가을이 깊어지는 11월,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윤정)이 준비한 2025 비르투오조 시리즈의 대미가 세계적인 소프라노 서선영의 무대로 장식된다.

오는 15일 오후 5시, 전주 문화공간이룸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은 ‘전주의 사계절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가곡의 정수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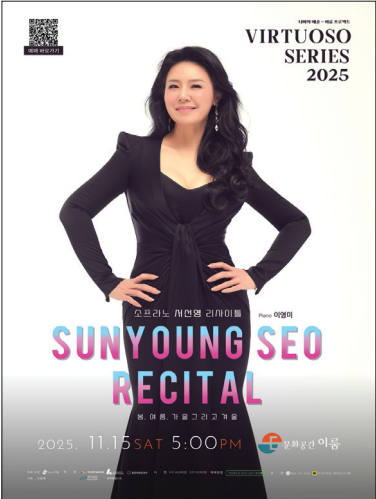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너머의 예술-이룸〉프로젝트의 피날레로, 세계가 인정한 목소리가 전주의 무대를 가득 채우는 특별한 순간이 될 전망이다.

무대에서는 봄의 설렘부터 겨울의 고요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전주의 풍경이 한국 가곡으로 그려진다.

‘첫사랑’, ‘청산에 살리라’, ‘뭇잎어’, ‘미증’ 등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서선영의 맑고 힘 있는 목소리를 통해 서정적인 한 폭의 풍경화로 피어난다.

서선영은 차이콥스키, 비냐스,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 모두 1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한 한국 성악계의 대표 인물이다.

빈 필하모니, 런던 심포니, 뮌헨 방송교향악단, NHK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고, 드보르작 오페라 〈투살카〉를 비롯해 〈오펜로〉, 〈투란도트〉, 〈나비부인〉, 〈로엔그린〉 등 다양한 작품에서



소프라노 서선영 리사이틀 포스터

주역으로 활약해왔다.

국내에서는 국립오페라단 〈투살카〉를 통해 프리마돈나로 이름을 알렸으며,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그 존재감을 입증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녀는 이번 전주 공연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갈

고 닦은 예술적 깊이를 관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눈다.

반주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트로싱엔 국립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피아니스트 이영미가 맡는다.

정제된 해석과 섬세한 감성으로 정평이 난 그녀는 서선영과 함께 한국 가곡의 언어적 울림과 정서를 섬세하게 풀어내며, 공연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공간 이룸의 ‘비르투오조 시리즈’는 피아니스트 조재혁, 신박듀오,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전주를 클래식 음악의 중심 무대로 부상시켰다. 민간 공연장이지만 탄탄한 기획력과 높은 예술성으로 관객과 깊은 교감을 이끌어냈으며, 지역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공간 이룸 이윤정 이사장은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 서선영 선생님을 전주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다”며 “2025년 비르투오조 시리즈를 통해 전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클래식 무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2026년에는 국제 협연 공연과 새로운 기획을 통해 더 깊고 확장된 예술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예매는 네이버에서 ‘비르투오조 시리즈’를 검색하거나 전화(063-223-5323)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9)

복 들어간게 문 여소!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그럼 이제 우리 조선은 해방인 거야?”
“그럼 해방이지, 해방!”
“와아! 해방이다, 해방!”

남준과 명희는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말 없는 많은 말이 두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아침마다 운동장에 모여 천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산에 올라가 관

술을 채취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굿패가 제대로 연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해 정월 열 나흘날 오후, 남준 아버지 강병도, 명희 아버지 박규환은 같은 굿패에 소속되어 마을 굿에 초대되었다. 굿패는 동네에 들어가기 전 먼저 금줄로 막힌 어귀에 당도했다.

몇 년 전에는 남준과 명희도 무동으로 굿에 참여했는데, 나이가 먹고 덩치가 커져 무동을 못하고 심부름꾼으로 따라갔다.

“행쟁 채재쟁 정쟁 채재쟁, 덩덩 쿵더덕 덩덩 쿵더덕.”

마을 사람들에게 굿패가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굿패가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굿을 펼쳐보일지 보여줘야 한다. 금줄 주변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굿패의 연행 실력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발수가 먼저 나발로 굿패의 당도를 알리고 이어서 대포수를 필두로 영기와 능기, 새남이 앞장 서 나가고 그 뒤를 굿패의 우두머리인 상쇠가 치배들을 이끌고 일렬로 나가 어느 지점에 도착한 뒤 상쇠가 마을에 굿패가 왔음을 소리치고, 이어 잡색 중좌장과 우장이 금줄 앞으로 가서 마을 큰 어른께 굿패의 입장 허락을 구했다.

큰 어른은 굿패의 실력을 보자고 한다. 상쇠는 쇠를 두드리며 굿패를 선도하여 이열종대로 배치시켰고 굿패는 연행을 이어가며 굿치는 실력을 보이기 위해 준비를 한다.

정월 대보름을 앞둔 전날, 마을은 실력 있는 굿패를 불러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굿을 연행토록 하여 마을 주민 모두에게 한해의 본격적인 출발을 축하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굿패는 문굿으로 연행 실력을 보여주고 마을로 입장하여 당산굿으로 마을 서낭당



에 인사하고 주민의 집에 들어가 마당밭이라 부르는 매국을 치게 되는데 조왕굿, 정재굿, 철동굿, 샘굿을 치고 마지막으로 성주굿을 치게 된다.

‘덩덩 쿵파쿵, 덩덩 쿵파쿵.’
장구쟁이인 강병도와 통북쟁이인 박규환 등 치배들은 이열종대로 서서 상쇠의 부름에 따라 가운데로 나와 기량을 뽐낸다.

이체덩더쿵 가락에 맞춰 먼저 법구쟁이가 소고를 들고 가지채로 달려 나가 한번 뛰어 서 허공에서 재주를 넘는 동작인 연풍대, 꾸리북, 옆치기, 가람이치기, 자리 잡고 좌우새 발림, 돌면서 맏고, 옆뛰기, 엇박 꾸리북, 앉아서 놀기 등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였고, 이어 타조 깃털로 만든 부포를 뺨상모로 이어 머리에 쓴 상쇠가 통북쟁이인 박규환을 관으로 불러냈다.

역시 가지채로 달려가서 연풍대, 발바치 발림, 오방진 가락으로 붙들고 앉고 서고 들고 차고들 동작하며 연주했고, 다음으로 상쇠는 장구쟁이인 강병도를 불러냈는데, 세로로 길게 나가다가 동서남북 가운데 다섯 방향에서 차례로 나선형으로 감았다가 풀어서 방울진을 거둬 쌓는 오방진과 발림, 가지채, 연풍대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상쇠는 같은 쇠인 수종쇠를 불러냈는데, 역시 연풍대로 입장하여 툭툭 강 툭툭강을 보여줬고 팽파리를 하는 높이든 채 너울너울 춤을 추기도 하였다.

“주인 주인 문 여소, 복 들어간게 문 여소! 문 여소 문 여소, 복 들어 간게 문 여소~!”

“가히 고창 최고의 굿패라 불러도 손색이 없소이다 그러. 어서들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그동안 쌓인 마을에 나쁜 액을 다 씻어주고 좋은 복만 집집마다 가득가득 퍼 담아 주시구려.”

‘이희문 프로젝트’ 정읍 공연

정읍시가 오는 12일 저녁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통 K-POP의 선두 주자인 이희문 프로젝트의 ‘오방신과 - 스캔글’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조선의 아이돌’, ‘B급 소리꾼’으로도 불리며 민요를 팝, 댄스, 록,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 ‘K-전통 팝’이라는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다.

또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은 전통 음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요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편견을 깨는 데 이바지했다.

이번 ‘오방신과 - 스캔글’ 공연은 이희문의 음악적 여정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연에는 밴드 ‘허송세월’과 민요듀오 ‘늘봄’이 협연자로 나서 민요에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입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관람 대상은 8세 이상이며,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경덕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전주문화재단, 8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8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지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지의 가치를 되짚고, 세계 속에 한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경덕 교수가 초청연사로 참여해 한지의 역사적 맥락과 인류 문화사 속에서의 영향력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특히 한지가 단순한 전통 종이를 넘어 문화유산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닌 소재임을 분석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홍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담론의 장으로 기대된다.

강연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질문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참여 신청은 전주천년한지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지문화팀(063-281-1630)으로 하면 된다. /정운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대한민국 치즈의 중심, "전북 임실"에서 "새로운 성공"을 함께 할 "파트너"를 모십니다



임실치즈농협 신축 치즈판매장 2층, 당신의 비즈니스가 빛날 바로 그 자리! 이곳에서 당신의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지난 6월,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임실치즈농협의 새로운 얼굴, 치즈판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임실치즈'의 명성과 함께할 특별한 공간, 신축 판매장 2층의 새로운 주인을 정중히 모십니다. 열정과 비전을 가진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임실의 새로운 랜드마크에서 당신의 성공신화를 펼쳐보세요."

*위치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향로 326 (임실치즈농협 치즈판매장 2층) *면적 206㎡ (약 62평) *준공 2025년 6월 (신축)
*주차 40대의 넓고 편리한 주차 공간 완비 *시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완비 / 3층 옥상 공간 추가 활용 가능 / 화장실

[문의 및 접수] 임실치즈농협 교육경영지원부
063-640-6442



어떤 공간인가요?

임실치즈전문판매점 2층입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치형 통창 너머로 임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으로 약 98평 (324㎡) 규모의 쾌적하고 탁 트인 공간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나요?

1층에는 임실치즈농협에서 갓 만든 신선한 유제품과 다채로운 치즈를 판매하며 이미 수많은 고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2층의 고객이 되는 최상의 시너지효과를 누려보세요.



이런 사장님을 기다립니다!

임실치즈와 최상의 공함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아이디어를 펼칠 업종을 환영합니다. 프리미엄 카페&베이커리 피자점, 치즈전문 레스토랑&와인바, 쿠키클래스&체험 공방, 복합문화공간

